제8대 총여학생회 총노선

총적목표

한걸음 성장한 주체의 혁신과
대안을 창출한 여학생운동의로
학우들 속에서 믿음을 뿌리내리고
여학생들의 자주적 삶의 정형을 세워
자주 민주 통일의 시대로 거침없이 전진하자 !!

◉ 사상적 과제 ◉

여학우들의 자주적 인간의 삶에 정형을 세워 자주 민주 통일의 시대로 거침없이 전진하자.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들이 변혁의 당당한 주체로 나서는 데는 남성보다 뛰어넘어야할 장애가많습니다. 오늘날 여학우들은 자본주의의 왜곡된 가치관 속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대학이라는 공간은 여성을 주체적으로 세우는데 본질적인 문제제기는 못하지만 사회에서 진보적인 흐름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공간이기에 더 이상 정체해 있으면 안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학우들의 삶 속에는 여러가지 질곡들이 녹아들고 있고 또한 그 고리가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그 고리들을 찾아 문제제기하고 극복을 위한 실천속에서 주인이 되는 계기를 창출하지 못해왔습니다. 하여 우리는 자기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 그 고리들을 창조적으로 모색하고 능동적 도전과 실천적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

여야 합니다.. 아울러 자주의 시대,통일의 시대를 올곧게 바라볼 수있는 역사인식과 비판의식은 여학우들의 약점인 사회성, 구조적 인식, 통찰력 등을 길러줄 수 있기에 다시한번 여학우들의 자주적 인간의 삶의 정형을 세워야합니다.

◉ 조직적 과제 ◉

한걸음 성장한 주체의 역량 강화로 학우들 속에 믿음을 뿌리내리고 여학생 운동의 토대를 구축하자.

1, 여성문제 인식의 대중적 확산위해 소모임 활성화

인간은 사회화 과정속에서 관제교육의 틀을 깨고 사회를 올곧게 볼 수 있는 깨우침이 있어야 하는데 가장 유력한 공간의 하나가 바로 여성학을 공부하는 소모임이다.여성문제 연구반이란 학우 자신의 생활 속에서 여성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학우들의 모임으로 여성문제에 해당하는 영역은 어디이며, 여성문제를 유발시키는 원인과 문제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함께 알아가며 실천하는 모임이다.또한 여성학 소모임은 여학생 운동을 대중화시키고 여학생 운동의 인자를 발굴해 내가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단위이다 이러한 소모임의 활성화에 대한 중앙의 지속적인 고민과 단위 실사를 통해서 소모임 활성화와 그내용성의 부분을 마련해 나가야한다. 95년 인문대 여성문제 연구반의 바탕위에 인문대 여성문제 연구반 모임을 지속시켜가고, 사회대 여성문제 연구반과 이에 속하지 않는 학우들을 중심으로 중앙여연반을 건설하겠습니다.

2, 97년 단대 여학우를 단대학생회와 총여학생회 두리로 이어주는 단대 여학생회 건설체계를 마련한다.

여학우들의 자주적 요구를 실현하려면 각과 여학생부에서 여학생회로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총여학생회의 몇 안되는 간부들의 귀와 발로 2500여학우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엔 부족하였고 각 과 여학생부 또한 여학우들의 의견을 전달하기엔 총여학생회와 거리가 멀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해서 요구되어진 것이 기층과 단위의 여학생부 활동과 단대 여학우들을 책임질수

있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여학생운동의 공간인 것입니다.
97년 단대 여학생회 건설과 자주적 총여학생회 강화를 위해 96년에는 단대 여학생회 건준위를 세워 여학생 운동 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3. '97년 여학생부 강화

기간 과 여학생부는 과 학생회의 임명으로 여학생부가 건설되어 여학생회 사업을 보장받지 못했고, 과 여학우들과의 지속적인 결합부족과 중앙 지도 미비로 과 여학생부의 활동이 부진한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과여학생회(부)의 올곧은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그 내용성마련이 가장 관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과단위 여학생회(부)의 내실을 다지게 할 것이고 바로 이것이 총여학생회로 보여튼튼한 여학생운동의 틀이 삽히게 될 것이다.
단순히 과여학우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여학생회(부)장이 아닌 과여학우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그들의 지도중심으로 활동해야하는 여학생회(부)입니다. 이러한 과여회(부) 사업의 정형 창출과 그 모범전파, 그리고 단대 여학생회(부)의 지도 내용마련은 바로 중앙내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그 내용의 논의, 심화시켜나가는 것이 총여학생회의 과제라 할 것이다.

◉대중적 과제◉

대안을 창출하는 여학생 운동으로 여학우들의 삶의 질적 변화를 일구어 내자.

1, 5월문제 배후조종 · 제2의 정신대 기지촌 여성을 유린하는 주한미군범죄 근절하고 민족자주권 실현, 통일 조국안아오자.

정신대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않은 지금 조국에는 아직도 외세에 여성인권이 짓밟히고 있는 제2의 정신대가 존재하고있다.
기지촌 여성의 인권유린 뿐만아니라 임대료 한푼도 내지 않는 우리 땅 미군기지에서 무차별 군사훈련으로 인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 미군부대 한국인 노무자들의 노예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에이즈, 마약, 음란물등 퇴폐 저질문화가 거대하게 유포되고 있다.
일련의 미군의 횡포,주한미군범죄는 근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폐지,민족자주권회복을 통한 통일 국가를 이룩할 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2, 여학우들의 일상적인 정치의식을 높여나가는 한해를 만들자

총선 과 이후 있을 대선투쟁에서 여학우들의 일상적인 정치의식을 높여 내며 김영삼 정권의 허구적인 여성정책을 폭로해 내면서 김영삼 정권을 심판하는 장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지역의 사회여성단체와의 긴밀한 연계로 각 후보들의 여성정액에 대한 부분을 견제해 내고 민주적 여성후보가 있다면 후보 당선을 위한 활동들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3, 자주학교

자주학교는 여성의 무릎을 꺾어 바로설 수 없도록 억누르고 있는 인식과 제도의 실태를 이야기하며 여대생의 실천을 다짐해보는 열린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성문제 해결은 여학우만이 가져간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6천이 여성문제해결이 주체임을 알아가는 자리가 되도록 자주학교를 준비하겠습니다.

4, 올바른 생활 문화 운동 전개

향락외주의 오락문화를 탈피 선조들의 놀이문화와 전통문화들을 계승 발전시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문화를 펼쳐낼 수 있도록하고, 외래문물은 무조건 좋다는 무절제 의식을 깨뜨리는데 생활문화혁신운동을 펼치겠습니다. (올바른 인사 문화, 흡연 구역 설정, 학교앞 술집 문화, 노래방 문화 서명운동...)